

## 김제중학교, 동문의 힘과 응원으로 꿈을 담은 교문 신축

파이낸셜뉴스 입력 : 2020.07.23 11:18 수정 : 2020.07.23 11:18



전북 김제중학교가 선배들의 힘으로 교문을 새롭게 단장했다. 사진=김제중학교 제공

【파이낸셜뉴스 김제=김도우 기자】전북 김제중학교(교장 이미숙)의 상징인 교문이 동문의 힘과 응원으로 신축되었다.

23일 김제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 유흥식 동문(24회)이 후배들의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큰 금액을 쾌척하면서 교문 신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.

김제중학교의 교문은 벽돌담으로 쌓여져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적인 면에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.

교문의 디자인은 학생과 교직원이 공모를 받아 추진했다.

유흥식 동문은 현재 서울 ㈜커뮤니케이션 신화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해마다 재경 24회 김제중 동문들과 함께 졸업생 2명에게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.

오승현 김제중 학생회장은 "학교의 얼굴이 새로워지니 마음가짐도 새로워지는 것 같다"면서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.

이미숙 교장은 "역사와 전통이 있는 김제중학교에 든든한 선배들이 많아 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"며 "학교 드나들 때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듯 하다"고 말했다.

964425@fnnews.com 김도우 기자

※ 저작권자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---

인쇄하기

취소